트럼프 '파리협약 재탈퇴' 우려 속 열린 유엔기후총회

바이든정부 기후특사 "트럼프 당선 실망…정책 되돌리려 할것"
COP29 의장 "파멸의 길 가는중"…WMO "파리 협정 큰 위기"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묵타르 바바예프 의장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급속히 진행 중인 기후 위기를 둘러싼 경고 메시지가 잇따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집권 1기 당시 탈퇴한 이력이 있었던 만큼 미국의 재탈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묵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며 "다자 기후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시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스스로 약속한 통제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인류 공통의 목표보다 각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협약 당사국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겠다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모든 당사국이 현재의 탈탄소 공약을 완전히 달성해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밑으로 기온 상승폭을 통제할 확률이 14%에 불과하다는 게 유엔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할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바바예프 의장은 이번 COP29에서 견해차가 첨예한 탈탄소 재원 마련 논의를 두고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진정성'이 결국 돈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뜻이다.

선진국은 돈을 내야 할 공여국 범위를 넓히고 민간 재원도 포함하자고 주장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공여국을 늘리는 것보다 선진국이 기후변화협약 상 공여 의무를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공공재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제사회가 재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미국 대표로부터 나왔다.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의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이날 COP29에 참석해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 운동가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행정부가 기후 정책의 방향을 되돌리려 하겠지만 미국의 도시와 주, 시민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뒷전으로 미룰 일이라고 해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엔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부각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1-9월 지구 평균 온도를 토대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파리 협정의 야심 찬 계획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뭄과 홍수 등 극단적 이상 기후를 불러온 점을 거론하며 "불행히도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며 미래를 이미 맛보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무궁화위성 6A호 발사 성공…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 35분 만 궤도 안착
KT 샛 "향후 고정 위성·방송위성 서비스 수행"

발사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케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위성 6A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가 발사되고 있다. /스페이스X 제공=연합뉴스

KT SAT(샛)의 통신용 위성 '무궁화위성 6A호'(Koreasat-6A)가 우주 궤도로 발사됐다.

스페이스X의 중계 영상에 따르면 KT 샛의 '무궁화위성 6A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9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11일 오후 12시22분께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팰컨9 로켓 부스터는 발사 후 7분여 만에 순조롭게 분리돼 지상으로 하강 후 착륙했고, 2단 발사체는 예정된 궤적으로 비행해 발사한 지 약 35분 만에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다.

무궁화위성 6A호는 향후 고정 위성서비스(FSS)와 방송위성서비스(BSS)를 수행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위한 제2호기 위성으로서,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정해 전국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이번 위성은 2017년 무궁화위성 5A호와 7호가 발사된 이후 약 7년 만에 발사됐다.

KT 샛 관계자는 이날 스페이스X 중계 영상에서 "KT 샛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정지궤도 통신 위성을 보유한 위성통신 사업자"라며 "무궁화 5A호, 6호, 7호, 8호, 그리고 지금 발사하는 6A호까지 5기의 무궁화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궁화위성 6A호가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 데에는 약 1개월이 걸린다. KT SAT은 자체 개발한 위성 관제 시스템 코스모스(KOSMOS)를 통해 연말까지 무궁화위성 6A호의 궤도 내 테스트를 마친 뒤 내년 1분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코스모스가 지원하는 위성 빅데이터 분석 기능으로, 위성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조치할 수 있다고 KT SAT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군, 정부, 방송사 등 국내 고객에 안정적인 데이터 및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부스터는 이날 발사로 통산 23번째 발사 및 귀환 후 착륙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질 바이든 초대에 멜라니아 "선약이…"

美영부인 회동 불발…멜라니아, 백악관 방문 동행 안 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남편의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방문에 동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 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한 백악관 회동 계기에 관례적으로 열려온 영부인과 차기 영부인 간의 상견례가 이번에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CNN은 소식통들을 인용,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의 백악관 방문을 초대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사전에 잡힌 일정을 이유로 초대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인 2016년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대로 백악관을 찾아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던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 부부간의 회동이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네타냐후, '헤즈볼라 삐삐 폭발' 공격 지시 첫 인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 동시다발 폭발 공격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무선호출기 작전과 하산 나스랄라 제거는 안보기관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반대에도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오메르 도스트리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도 11일 "총리가 무선호출기 공격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무선호출기 폭발 사건 후 이스라엘이 공격 배후로 지목됐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작전을 반대했다고 언급한 '정치권 관계자'는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